

제주 주택건설사업자 폐업 가속화

경기침체·순유입 인구 감소 이유 부동산경기 '짜늘' 최근 5년간 등록증 자진반납 속출... 70% 신생기업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순유입 인구 감소로 제주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악화일로로 접어들며 도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잇따라 사업자등록을 자진 반납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사업을 시작한 신생 주택건설사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건설사업체는 이날 기준 376개소(주택건설 348, 주택건설 및 대지 조성 12, 대지 조성 16)다. 2017년 424개소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397개소, 2019년 372개소로 점차 몸집을 줄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2015.1.1~20.9.21) 사이에 건설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190개소에 이른 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개소, 2016

년 21개소, 2017년 44개소, 2018년 48개소, 2019년 52개소, 2020년 9월 말 기준 12개소 등이다.

이처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40~50여개 업체가 폐업의 길로 들어서면서 도내 건설경기의 어려움 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2015년 이후에 등록된 곳은 133개소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7개소는 2014년 이전부터 건설업을 운영했던 곳들이다. 지난해 52개 업체에서도 2016년 등록된 업체 18개소가 문을 닫았다.

신생 주택사업체일수록 자금난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 을 더 받아 폐업으로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경우도 사업자등록 자진반납업체 12개소 가운데 3개만 2014년 이전에 등록된 업

체다. 심지어는 지난해 개업해 1년도 안 돼 문을 닫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수주액은 5400억원으로 2018년에 견줘 전체적으로 14.5% 줄었다. 지난 8월중 건축착공면적과 허가면적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45.9%, 14.4% 감소했다. 7월중 건설수주액도 민간부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49.6% 급락했다.

제주 순유입 인구는 2010년 437명에서 3년 만인 2013년 7823명으로 급등했고 2014년에는 1만1112명으로 1만명 대를 넘어섰다. 이후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으로 절정을 이뤘다. 하지만 2018년에는 8853명으로 순유입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2936명으로 3000명 선마저도 무너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행정시 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공출진원과 등 양 행정시를 상대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코로나 시대 소비시장 변화 적극 대응해야”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급변하는 시장 분석” 김용범, 양돈 약취 문제 지적



현길호 위원장

코로나19 시대 급변하는 농식품 소비 시장에 대응해 제주 농업의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집행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분야 위기 극복에 총

력 대응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 세부 대책을 살펴보면 현장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농축산식품국과 농기계

관리과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적응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안전과 비대면, 건강을 키워드로 농식품 소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 위원장은 또 내년 농업분야 국비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가축분뇨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약취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양돈 분뇨 처리를 기존 집중화 처리에서 정화 후 재이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고 하는데, 2023년까지 이행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은지기자

에월읍 생활SOC 복합화 시설 신축 확정

송재호 의원 국비 39억 확보

제주시 에월읍에 복지 인프라 시설인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어진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송재호 의원은 ‘제주시 에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국무조정실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문화·체육·보육·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물을 하나의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복합화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와 도민 편의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시 에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목욕탕 및 수치료실 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39억, 지방비 161억)이 투입된다.

제주시 에월읍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 편의시설의 부족

으로 지역 주민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으며, 송 의원이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과 제주도청 및 시청, 에월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송 의원은 “에월은 한림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생활 중심지로 관광객과 주민의 이동이 활발한 곳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지역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욱 활력이 있는 관광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마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방치·홀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운영기준 제도화” 제주목관아 청원도 심사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마을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방치·홀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오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도내 전수회관에 대한 운영기준과 마을전수회관 홀대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회를 목적으로 건립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8곳이다. 이 중 행정에서는

조례로 5개소만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똑같이 문화재부서에서 건립비를 지원한 마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인류의 무형유산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은 2층 공영장이 있음에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전시시설 역시 콘텐츠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오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제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진 전수회관이 8개소나 되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마을전수회관의 관리부재와 제도권 안에 있는 전수회관조차 관리운영 규정이 없어 활용도를 더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면서 무형문화재의 전승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수회관 운영기준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광위는 ‘제주 목관아를 사적공원(시민공원)으로 개방 촉구 청원’을 심사하고 “문화재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했다. 문광위는 의견서에서 “제주 목관아의 적절한 보존 및 충분한 보호 장치와 더불어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야간 개방, 지역주민과 인근 상권을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등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신품종 ‘중생양파’ 보급 확대 동부농기센터·김녕농협 협력



신품종 중생양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김녕농협(조합장 오충규)과 협력해 국내 육성 신품종 중생양파를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확대 보급한다.

21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평균기온은 전년과 평년 대비 0.6℃, 0.95℃ 각각 높음에 따라 만생양파의 경우 겨울철 생장이 멈추지 않고 자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줄기가 마르지 않고, 도복이 늦어지면서 수확시기가 장마철과 겹치면서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양과 작부체계 다변화로 수확시기 분산을 통한 노동력 분배, 5~7월 틈새시장 공략 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신품종 중생양파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생양파 실증시험 결과, 지상부 도복 시기는 5월 15일쯤으로 만생양파(6월 10일)보다 25일 빨랐고, 3.3㎡당 생산량도 25kg 내외로 만생양파(20kg)보다 높은 수량성을 보였다.

센터는 김녕지역 마을별 고도를 구분해 14농가·4ha 포장을 선정해 품종비교 전시포 및 확대 보급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생육조사, 지역적응성 검토, 시비 및 병해충 방제, 농가컨설팅 등 현장 기술지도도 실시하고 김녕농협은 육묘, 농가 및 포장선정, 수확 후 선별과 유통을 담당한다. 백금탁기자

위촉 공고

여성가족부
제주도청 복지청소년과에 속한 청소년단체로서 전도에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위원을 위촉합니다.

모집부문
1. 사)제주청소년연합도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위원
2. 43개 읍·면·동 지역 마을회장(남·녀)

모집기간
2020년 9월 1일 ~ 10월 30일까지

제출서류
※ 신변상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분에 한함
이력서(연락처 기재)
증명사진 2장(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신분증 부착)

제 출 처
우편번호 63225 제주시 연삼로 470번지

사)제주청소년연합도지부장
연락처 : ☎ 746-1318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 중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시식, 청진가시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